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3월 1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 14.(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3. 14.(수)	담당부서	동북아통상과
담당과장	조수정 과장(044-203-5690)	담 당 자	조아라 사무관(044-203-5694)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채널 본격 재가동

-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3. 14.(수)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산동성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의체인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 '15. 8월 산동성 정부는 산동성장 방문 당시 산업부와 통상협력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 측은 동 협의체를 격년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는 '16. 7월 산동성 제남에서 열렸던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가 된다.

○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산업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로서, **우리나라와 중국 지방정부 간의 경제통상 협력채널이 본격 재가동**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요】

○ **(일시·장소)** '18. 3. 14.(수) 16:00-18:20,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 **(주 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산동성 인민정부
* 한국무역협회-산동성 상무청 공동 주관, 아주경제-인민왕 한국지사 보도후원

○ **(주 제)** 한중 양측 지방경제협력, 중한 산업단지건설 및 기업의 관심사

○ **(주요내용)** 기조연설,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및 한중 FTA 서비스무역 협력 관련 발표

○ **(참 석)** (한국)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새만금개발청, 인천시, 무역협회 등
(중국) 산동성 상무청장, 주한중국대사관, 위해시·제남시·연태시·하택시 등

○ **(부대행사)**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네트워킹 및 교류만찬회 개최

□ 이번 회의를 위해 산동성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위해시, 연태시 등의 부시장 등**을 포함한 **총 16개 시·현으로 부터 17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활성화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한-산동성 간 협력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줬다.

○ 산동성은 중국내 **우리의 투자법인수가 가장 많고 누적 투자금액 2위, 교역액 3위의 지역**이며,

* 한국의 대(對) 산동성 투자법인수: 8,338개('17.9 누계) 중국전체(26,735)의 31.2%(1위)
* 한국의 대(對) 산동성 투자액: 142억 달러('17.9 누계) 중국전체(776억 달러)의 18.3%(2위)
* 한국의 산동성 교역: 308억 달러(수출 150, 수입 158)('17년) 11.0%(3위)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7장에 규정한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모두 보유한 지역**으로, 한중 양국 간 교역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 (중) 산동성 위해시 - (한) 인천시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협력단지 : (중) 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
(한) 새만금

○ 특히, 최근 대중(對中) 수출이 재개된 삼계탕의 경우 **'16년 산동성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인천시와 위해시는 각각 상대국에 **위해관과 인천관을 설립해, 양자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이번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산동성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한국-산동성 간의 교역·투자 확대, ▲서비스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한중 산업협력단지·지방경제협력 시범구를 활용한 협력 추진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이 국장은 산동성 셔춘밍(佘春明) 상무청장과 **한-산동성 정부간 공동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활용방안, 보건의료 등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산동성 정부는 특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용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 산업협력단지 간 정기적인 기업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양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 이번 대표단 방한 계기에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관심을 표한 **시정부(옌타이, 린이, 더조우 등) 및 기업 등 40여명의 대표단은 새만금 현지를 방문**해, 현지의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는 **산동성 내 기업**과, 특히 산동성에서도 중한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한 **연태시의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산동성 측을 장려**하고, 기업에 새만금과 관련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 양국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간의 협력과 관련하여서도, 중국측은 산동성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선행도시로 역할**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와의 서비스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 우리측은 그간 인천시-위해시 간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따른 새로운 분야 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양측은 지난 회의시 체결하였던 **연세의료원-신화금그룹 간의 보건의료분야 한중 합작병원 설립관련 양해각서(MOU)를 상기**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칭다오 세브란스 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산동성 내의 주재원 비자 최초발급 및 갱신 시 2년 기한 부여***와 **위해 세관에서의 화물 세관 검사 일수 단축** 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으며,

* 한중 FTA 부속서 11-2 비자편리화 협정 내용에 따라 최초 체류비자 발급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를 갱신시에도 확대 적용키로 합의

○ 산동측은 동 애로의 해소를 위해 관련 **시·현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후속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산업부는 중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력채널 개최를 위해 중측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광동성('10년), 섬서성('12년), 사천성('15년), 산동성('15년), 강소성('16년) 등 5개 지방정부와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 중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조아라 사무관(☎ 044-203-56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